



조선 강산

4

주제 108(2019)
루체 제356호 월간

수령님 밤이 꽉 깊었습니다

좀 느리고 절절하게

작사 윤두근
작곡 리봉룡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starts with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It includes lyrics in Korean. The second staff continues the melody. The third staff begins with a dynamic of *mf*. The fourth staff starts with a dynamic of *B*. The fifth staff concludes the melody.

1. 행복의 요람 속 - 에 인민을 재우시 - 고
이 밤도 사랑의 -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 - 슬 - 내리는데 - 또 어데 가시옵니
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꽉 깊었습니다
하루라도 - 한시라도 - 편 - 히 쉬시옵기
를 수령님 수령님 인민들 은바라옵니 다

2.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한순간 휴식마저 잊으시는 수령님
그 무슨 심려안고 이 밤도 새우십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꽉 깊었습니다

3. 혁명의 비바람을 한몸에 막으시며
한평생 인민위해 걸으시는 수령님
인제면 그 인제면 편히 쉬시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꽉 깊었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수령님 수령님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흘모의 마음

만민의 다함없는 흘모심이 어리여 활짝 피여난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해외동포들이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휩싸여 불멸의 꽃앞에서 좀처럼 걸음을 끊기지 못하고 있다.

본사기자 임정국

차례

기적을 안아온 크나큰 믿음 ······ 3

일화

화고히 경지하신 자립경제로선 ······ 6 풀에서 실을 뽑는 기업소를 세우도록 해주어야 ······ 7

주체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 8

일화

그이의 음악세계 ······ 10



나날이 발전하는 음악예술 ······ 11

격동, 환희, 신심 ······ 12

사진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 14

가요 《조국찬가》와 명곡 ······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 ······ 17

수기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 19

주체화의 동음드높이 ······ 20

천천의 절을 더욱 높인다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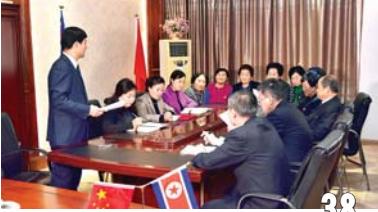
실력있는 교육자집단 ······ 24

절찬받은 3중주단 ······ 26

천연아미노담 《복명》의 개발자들 ······ 28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 김일화 ······ 29

26

편지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31
조국의 품에 안겨	
애국의 열매 주렁지는 땅	32
	
고향소식	
군민의 정 넘치는 교장	34
지원증서들에 깃든 사연	36
서로 위해주는 동포부부	37
다함없는 흡모와 그리움속에	38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1)	42
인상기	
자기 힘이 케일이다	43
고국의 밝은 앞날이 기대된다	43
매혹은 어디서	44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 (2)	45
민족의 향기	
민족의 자랑—민속무용 《상묘춤》	46
력사인물	
적재능을 보여준 리상적	47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48
야화	
일곱장수이야기	49
	
사화	
정벌의 검	50
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4)	51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4)	52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54
강화되는 《보안법》 철폐운동	55
인권유린국, 인권말살국	56
상식	
조선민족의 이름짓는 풍습	25
간단한 건강생활법	27
잔치에서 들려리의 유래	33
조선속담 (대담성)	48
유모아	
자라는 머린미꽃	51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75(1986)년 6월

기적을 안아온 크나큰 믿음

화창한 4월의 봄날을 맞이하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한다는 것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는 그이께서 숭상하신 정치적 신앙이였다. 바로 이것 이 그이께서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실수 있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그에 대하여 말하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1950년대 중엽 방금 전쟁의 상처를 가신 조국의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거기에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하루빨리 수행하여 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하였는데 자재도 자금도 부족하였고 인민생활도 어려웠다.

이런 환경과 정세하에서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의 새로운 국면

을 열어나갈 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에 강재와 알곡, 일용품을 더 생산할데 대한 증산파제가 제시되었다.

그때 나라의 형편에서 자체의 힘으로 그 방대한 파업을 수행해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더욱이 당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강재를 더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성의 리론이나 상식을 가지고서는 난해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1956년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28일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였다.

제강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곳 일군들과 모범로동자들과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나라의 조성된 정세와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심중하게 토의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우리가 맥을 놓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당(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 있으며 동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편 수 있다고 절실히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긴장한 강재문제를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긴장한 강재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들이 다름아닌 동무들이

다, 동무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나라의 긴장한 강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협의회를 마치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천정기중기가 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히 달리고 장입바가지가 높이 떠서 오가는 용해장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용해공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기세충천한 그들의 일솜씨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다가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이 자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용해공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자신 있다고 힘 있게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여기에 나오면 힘이 솟는다고, 로동자동무들은 하겠다고 하면 해낸다고 믿음과 기대를 담아 교시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불러일으키시려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는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되었다. 그이께서는 수첩을 펼쳐드시고 강선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며 손수 계산도 해보시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증산예비까지 찾아주시였다.

이날 강선의 로동계급은 묻혀있던 수많은 예비들을 더 찾아냈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철강제증산파제를 기어이 수행하고야말 새로운 신심과 용기, 투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우리가 일떠서야 나라가 허리를 편다!』는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강재 1만t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분파압연직장 로동계급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혁신적으로 달라붙어 한대치기밖에 할수 없다는 분파압연기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두대치기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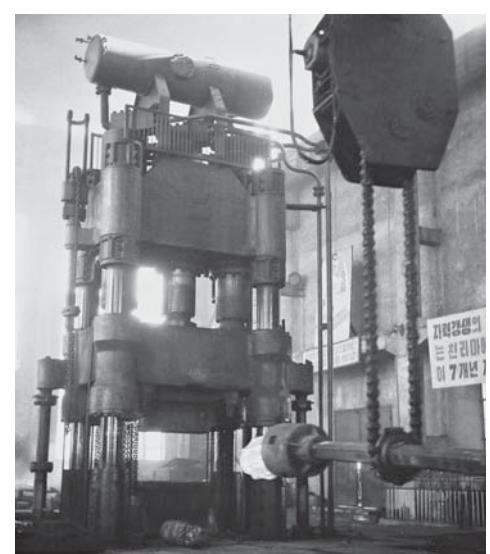
용해공들은 로보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채식지 않은 수백°C의 로안으로 앞을 다투어 뛰여들

어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용해시간단축에 지장을 주고 있던 교대본위주의사상을 아래 짓뭉개버리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렇듯 강선의 로동계급은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



강철증산투쟁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킨 첫 천리마작업반성원들



기양뜨락또르공장(오늘의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생산한 《천리마》호뜨락또르들(↑)
룡성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3천t프레스(←)

내고 설비리용률을 최대한 높이였으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산 6만t공정능력의 분파압연기에서 마침내 12만t의 강재를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7년 한해동안에 만도 황해제철소(당시), 김책제철소(당시)를 비롯하여 홍남, 신포지구와 문덕군, 숙천군 등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 농어촌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전체 인민을 끌없는 위훈창조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대중에 대한 그이의 믿음은 기적을 안아왔다.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은 출선시간을 30분 더 단축하였으며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2호용광로와 2호해탄로를 건설하였을뿐아니라 년산 19만t능력의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뽑아냈다.

황철의 로동계급도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1950년대말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력쟁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면서 30여일만에 《천리마》호뜨락또르를, 40여일만에 《승리-58》자동차를 만들어냈으며 얼마 안되는 기간에 8m타닝반과 3천t프레스, 《천리마》호굴착기, 《락원1》호대형양수기, 《붉은별58》불도젤을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력, 화학, 철도, 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신화적인 속도로 내달려 나라의 공

업화를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설계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극복방도도 인민들속에서 찾으시며 년대와 년대를 이어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은 세월이 흘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만 믿으면 그 어떤 고난도 뚫고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안으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이 침예하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엽의 그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쉬임없이 인민을 찾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을 믿고 충직하게 밭들어온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 사랑과 헌신의 강행군길에 자신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국인민들은 오늘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땅 곳곳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날에 날마다 창조해나가고 있다.

그렇다.

그 누구든 조선의 기적이 어떻게 창조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고싶다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을 먼저 찾아가시는 령도자의 그 믿음의 세계부터 먼저 알아야 할것이다.

확고히 경지하신 자립경제로선

북술된 《쎄브》가입요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45(1956)년 이전 쏘련을 방문하시었을 때 조선의 정부대표단과 이전 쏘련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이전 쏘련측은 조선에서 기계공업을 건설해야 원가가 높아서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쎄브》에 들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첫째로, 《쎄브》라는것은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인데 유럽나라들은 공업이 발전된만큼 어느 한 부문을 맡아서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것, 둘째로, 우리 나라의 기계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쎄브》성원국들에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남을것이란 빈 굴뿐이라는것, 셋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역질하려 돌아다닐수밖에 없게 될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 큰 나라에도 부담이 될것이라는것, 그러므로 《쎄브》에 들수 없다고 입장장을 명백히 하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사실 《쎄브》라는것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가 《쎄브》에 참가한다는것은 그 나라에 예속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을 하여 다시 예속될바에야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겠는가, 자본주의에 예속되는것이나 사회주의에 예속되는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좋게 화장을 하여도 그 것은 예속을 의미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통찰력과 분석판단이 얼마나 현명하였는가는 그후 《쎄브》에 가입하였다가 녹아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비극적사태가 뚜렷이 보여주었다.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

어느해인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당시 서평양철도공장)조업식에 나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이제는 훌륭한 공장을 지어놓았으니 대답하게 결심하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기술에 사람이 매여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창조하는것만

큼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것이 없다, 대답하게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전기기관차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만들수 있다고 일군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전기기관차제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신심을 잃지 않고 부닥치는 난관을 대담하게 뚫고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시였다.

그때 전기기관차제작에서 제일 걸린것은 전기기관차의 전력공급과 중단, 운전의 밀음성과 사고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속도차단기제작이였다.

수십차례의 실패가 계속되자 보수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콩을 먹자면 이발이 있어야 한다고 시비하면서 고속도차단기의 수입설을 들고나왔다.

바로 이때에도 그이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제작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고 또 다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이런 밀음과 사랑속에 공장의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마침내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주체50(1961)년 8월 어느날 공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전기기관차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는것보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싸워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조선에서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수 없다고 한 외국사람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만든 전기기관차를 보니 힘이 솟는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이렇게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첫 전기기관차에 《붉은기》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달아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자력갱생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갈 굳은 결심을 다지고 또 다지였다.

윤학수

돌에서 실을 뽑는 기업소를 세우도록 해주리여

조국에는 돌에서 실을 뽑는 공장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있다.

기업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여 합성섬유인 비날론공업화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으며 그 생산공구들도 보내주시였으며 연구집단도 무어주시였다. 그를 과학자대회[주체41(1952)년]에도 불러주시고 연구사업정형에 대해 늘 알아보시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들이 질세라 해빛을 주시고 힘이 진할세라 용기를 안겨주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와 연구집단에 창조의 열정을 부어주는 귀중한 활력소로 되였다. 하여 그와 연구집단은 마침내 합성섬유를 시험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되였으며 첫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이제는 기업소가 일떠선 때로 부터 반세기가 넘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조국인민들은 비날론을 발명하고도 실현시킬수 없어 몸부림치던 한 과학자를 품에 안아 그의 소원이었던 비날론의 공업화를 현실로 꽂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은혜로운 품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당시 합성섬유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던 리승기선생의 공적은 세계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지식인인 그에게 있어서 비날론의 공업화는 실현불가능한 것이였으며 해방후 외세가 강점한 남조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제시기 연구사업은 커녕 감옥살이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는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 비자루를 만들어 팔며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선생의 정상을 누구보

다. 그리고 공장부지를 잡아주신것은 물론 건설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공장건설에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그 앞장에서 건설을 진두지휘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설비생산을 맡고 있는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대답하게 생각하고 창발적으로 일하도록 생산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건설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그들자신부터 건설의 앞장에서 통이 크게 일관을 벌려나가도록 고무해주시였으며 건설현장을 찾으시여서는 건설자들모두를 위훈창조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하여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건설속도 비날론속도가 창조되게 되였으며 마침내 웅장한 공장건물이 솟아오르게 되였다.

이렇듯 한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현실로 꽂아주위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여 대규모비날론공장건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주체50(1961)년 5월]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돌에서 실을 뽑는 전설같은 비날론공업화의 새시대가 꽂펴나게 되였다.

하기에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던 그날 리승기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날론에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하는 어버이의 심정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잊지 마시오.》라고 자기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강은순

주체 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오늘 조국의 음악예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모란봉전자악단을 비롯한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진취적이며 열정 넘친 공연활동으로 사회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인민의 지향과 감정을 담은 노래 《우리의 국기》를 비롯한 명곡들이 끊임 없이 창작되어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걸작품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창작공연되어 세계를 놀래웠다.

외신들은 조국의 음악예술의 발전을 두고 그 비결에 대하여 한결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결실이라고 평하고 있다.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노래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미학관, 음악예술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대중음악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음악형상과 연주형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모란봉악단(당시)과 청봉악단을 조직해주시고 창작창조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처음 모란봉악단이 조직되어 배우들이 유명한 악단들이 내놓은 명곡작품들을 채보하고 형상하면서 자기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외면하고 있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채보하여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 않게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률을 위주로 하는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하나하나의 곡목선정으로부터 편곡과 배우들의 연기형상, 분장과 인사법, 무대조명과 장치, 음향조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인민앞에 끝없이 성실한 음악관을 배우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도록 해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앞에서 공연할 때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비행복을 입고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창작가들을 일깨워주시고 각 도 인민들앞에서 공연할 때에는 그들의 생활과 가까운 종목들을 펼치도록 노래종목도 하나하나 선정해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독특한 성색융합의 안삼불과 금관악기위주의 경음악이 조화를 이룬 새롭고 특색있는 경음악단인 청봉악단의 음악장르와 편성, 연주형식과 소리형상수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창조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예술창조사업에서 첫 공정은 편곡을 잘하는것이라고, 편곡은 노래의 양상에 맞으면서도 새맛이 나게 하여야 들을 재미가 있다고, 같은 노래라도 특색있게 편곡하여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언제인가 공연무대에 올릴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의 첫 연주를 무려 5차례나 들어주시고 편곡을 재미나게 잘했다고, 연주를 다시 해보라고 치하도 해주시였으며 연주에서 민족성을 살리는 문제가 기본이라고 강조도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후 또다시 노래 《우리 앞날 밝다》는 가사가 좋기때문에 3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2절에서 3절로 직접 들어가라고, 그러되 전조를 하라고 하시면서 간주는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전문가들의 굳어진 관례도 대담하게 깨도록 일깨워주시였다.

음악예술인들이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이시였다.

창작가들이 낡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자리지킴, 보신주의와 형식주의 등에 물젖어있을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도록 경종도 울려주시였으며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여 인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은 명작을 창작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그 나날 1980년대에 창작되었던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새롭게 형상되어 조국인민 모두의 신념의 노래로 더욱 힘있게 불리워지고 《조국찬가》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와 같은 시대의 명곡들이 온 나라에 울려퍼질수 있었다.

정녕 그이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아래 음악예술부문은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친근한 스승이 되시여

폭넓고 깊이있는 음악지식을 소유하고 계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탄복할 정도로 음악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심하고 친근한 손길로 음악예술부문 창작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은 합창만이 아니라 관현악단도 국가를 대표하는 악단답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관현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밝혀주시였다. 몸소 창조현장에 나오시여 바이올린연주가들의 활쓰는 방법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면서 늘 형상지도를 한다는 저희자나 어느 연주가도 알수 없었던 세부적인 결함까지 순간에 포착하시고 그 원인과 해결방도까지 명쾌하게 가르쳐주시였다.

합창단의 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성악배우들의 기량문제해결, 배우들이 리듬, 장단을 잘 타도록 하는 문제…

그이께서 밝혀주신 문제들은 끌이 없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이께서는 몸소 모란봉악단(당시)의 창조현장을 찾아주시고 가수들이 자기가

부를 노래에 대한 연구를 깊이있게 하여야 하며 노래형상에서 자기만이 가질수 있는 얼굴과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음정과 발음, 호흡계기와 절정대목선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한 신인가수를 온 나라가 다 아는 훌륭한 가수로 키워 조국앞에, 인민앞에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몸소 교수안까지 짜주시고 가수가 노래형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움으로 속을 태우고 있을 때에는 성량활동과 감정축적, 폭발, 지속음유지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며 범창도 해주신 그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악단들을 찾으시고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룩음으로 들어주시며 노래형상안을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손길아래서 배우들은 인민의 아낌없는 찬탄과 사랑을 받는 전도유망한 가수, 연주가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비롯하여 많은 예술단체들의 연주회, 공연들을 보아주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맞게 창작가,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비약하고 창조로 들끓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1970년대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빛나게 장식하였던 70, 80대에 이른 어제날의 명가수, 명연주가들로 뜻깊은 무대인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를 펼쳐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시대를 생각하도록 해주시였고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진행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창작가들에게 령감을 티워주고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신 그이이시였다.

진정 음악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기신 그이의 그 무수한 자욱자욱이 있어 진정한 인민의 예술, 참다운 인민의 음악이 창조될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시대의 진군가가 되여 시대를 격동시키고 인민을 기적창조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의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은 더욱 아름다와질 것이다.

그 이의 음악 세계

기백있고 약동하는 공연

주체101(2012)년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당시)의 시범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무대에는 조국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들이 올랐다.

악단은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성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 펼쳤다.

불과 10여명의 연주가들이 몸에 푹 배인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쾌한 선률을 멋들어지게 울렸으며 깊은 가수들은 곡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 노래를 정서적이고 흥취나게 불려 공연장소를 시종 격정과 환희로 달구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시범공연성파를 축하해주신 그이께서는 모란봉악단공연은 진취적이며 맥박이 높다는 공연이라고, 이런 공연이야말로 기백있고 약동하는 공연, 살아숨쉬는 예술활동이라고 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란봉악단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서적요구에 맞는 음악을 창조하고 공연하여 그들이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얼굴과 고유한 특성을 살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편곡을 잘하고 공연종목을 바로 정하여 배우들이 형상을 특색있게 할데 대해서도 이르시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서정적인것도 하고 리듬이 강한것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을 전형으로 내세우시여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당시)의 신작음악회를 보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연성파를 축하해주신 그이께서는 당(조선로동당)에서 준 파업을 열백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마는 결사판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으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돋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 열풍이 바로 모란봉악단에 차넘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음악작품창작창조활동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고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책적대가 뚜렷한 가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고상한 선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 풍부한 형상이 안발침된 음악작품을 창작하는것이라고 이르시였다.

특히 선률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장단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드높은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나날이 발전하는 음악예술

오늘 조국의 음악예술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있다.

가요창작과 편곡, 연주형상에 이르는 창작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주체음악예술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주체음악예술의 발전면모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들어잡고 주체음악예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있는 국보적인 예술단체, 멋쟁이악단들이 태여난데서 찾아볼수 있다.

악단의 얼굴과 특성을 살리고 시대의 숨결을 민감하게 반영한 우리식의 대중음악과 경음악을 새롭게 창조하는 모란봉전자악단과 청봉악단의 음악,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음악은 주체음악예술의 발전모습과 휘황한 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몇몇 전문가들을 위한 기호품처럼 되여있던 교향악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교향악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지도에 의하여 대교향악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놓고 있다.

기성의 형식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형식의 독창성과 인민성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완성한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와 관현악경주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9월의 대축전장에 울려퍼진 교향곡 《사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주의교향곡》 등은 조국의 음악발전사에 지울수 없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긴 서사시적 작품들이다.

음악창작에서 계승성의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작품들은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적열정과 땅만을 안겨주고 주체음악예술의 발전모습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에 의하여 건설된 현대적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고 최신과학기술에 의한 음향설계에 준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인민극장과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주체음악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상최고의 예술로 발전시킬수 있는 훌륭한 터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을 놀래우는 명곡들과 그것을 훌륭히 연주할수 있는 세계적인 악단들과 극장들이 새롭게 태여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주체음악예술발전의 뚜렷한 증거로 되며 그 생활력과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주체음악연구소 연구사
원일진

격동, 환희, 신심

음악예술이 사회발전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서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그것은 음악예술이 사람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 뜨거운 열정을 안겨주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조국에서는 예술단체들이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 호소성을 가진 공연으로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오늘에도 다를바 없지만 주체106(2017)년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모란봉악단(당시),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바로 그려 하였다.

조국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은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

북도, 자강도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공연활동으로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예술인들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들과 경음악, 가무,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을 무대에 펼쳐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자기 힘을 굳게 밀고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꽂피워

가려는 조국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보인 공연은 시종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원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파장 한동국은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의 때 종목들이 온몸에 새 힘이 용솟음치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무대에 펼쳐진 하나하나의 종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다. …』

어느 한 청년돌격대 일군인 장윤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진행된다는 기쁜 소

식을 전해듣고 판교군에서 수백리를 달려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열정적이고 기백넘친 공연을 보고나니 새 힘이 용솟음쳤다, 공연무대에 펼쳐진 종목들은 단순히 노래와 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다, 정신이 번쩍 드는 훌륭한 공연을 보면서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돌격대제복을 애국의 구슬땀으로 적시며 우리당(조선로동당)을 밟들어 청춘을 빛내여갈 결의를 다진다고 하였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

받아안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눈부신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함경남도예술단 연출가 리용남은 공연을 보고나니 흥분을 억제할수 없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뛰여난 연주기량과 세련된 룰동, 째인 안삼불, 혁명적랑만파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선률 등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희망찬 래일을 마중해나가는 우리들의 투쟁과 생활, 조국의 벅찬 숨결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

그들뿐이 아니라 공연을 본 관람자들모두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조국땅을 인민의 만복이 넘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열의로 가슴불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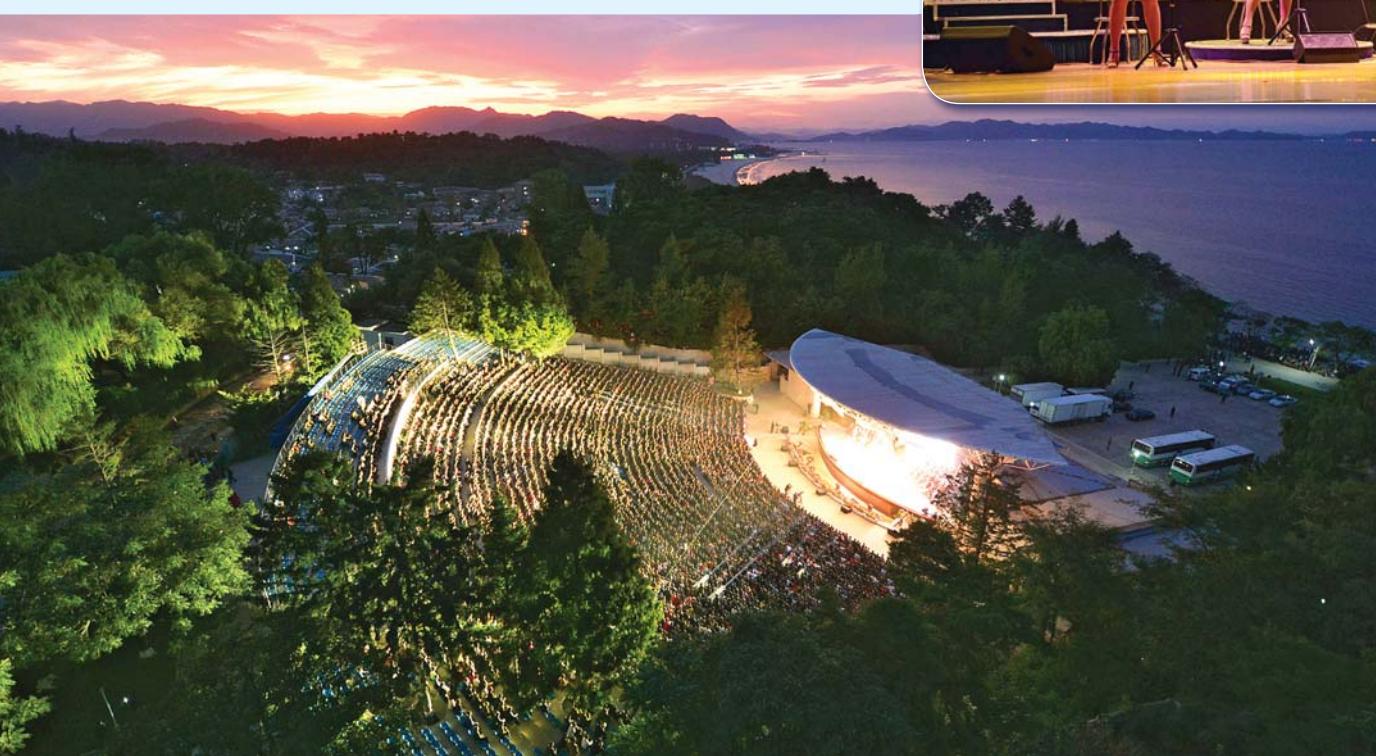
성황리에 진행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인민들의 열의와 투쟁기세를 배해해주었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남비료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온몸에 새 힘이 솟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공연이 야말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위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내 조국의 힘찬 기상이 약동하는 공연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한해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어느 한 방직공장의 정방공 김정애는 공연에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가요 《조국찬가》와 명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과 더불어 힘차게 울려퍼졌던 《애국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조국을 노래한 수많은 명곡들이 창작되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가요 《조국찬가》도 있다.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애국으로 불리는 조국인민들의 심장을 더 세차게 높뛰게 하였다.

노래는 구성과 형상이 독특하고 그 내용의 폭과 깊이가 큰것으로 하여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인민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명곡이란 들을수록 좋고 새길 수록 뜻이 깊어지며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은 노래이다.

들을 때에는 좋은것 같아 느껴지다가도 몇번 들으면 더 끌리지 않는 노래는 명곡이 아니다.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며 오늘이나래 일만이 아니라 먼 후날에도 널리 불리우며 사랑을 받는 생명력을 가진것이라야 명곡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가요 《조국찬가》야말로 명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가사가 명가사로 씌여졌을뿐만 아니라 노래선율 또한

인민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고 즐겨 부를수 있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사는 노래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창작된다.

가요 《조국찬가》의 제목도 그렇지만 가사의 구절구절들은 조국에 대한 소중한 감정으로

하여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온다.

가요 《조국찬가》의 1절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 여라》라는 소박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노래는 조국이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를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찬 전설의 나라》라고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였다. 3절에서는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편 이 강산》이라고 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국조와 국화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목표를 내세우고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의 장한 모습과 인민의 민족적자긍심, 짐장바쳐 조국을 빛내여갈 굳센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절의 두번째 소절인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구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염원과 인민의 리상이 모두 이루어질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노래는 가사에서 보다 싫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슬기롭고 용맹한 조선의 참매를 그려보게 하고 꽃을 보아도 내

나라의 목란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인민의 진실한 사상감정파창공에 나붓기는 우리의 공화국기가 영원히 펄펄 휘날릴것이라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와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인민의 굳은 결심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

반만년의 역사가 흘러 그 지정학적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그 언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오늘처럼 찬란히 빛난적 있었으며 우리 조국의 엑센 기상이 이토록 온 누리에 솟구친적 일찌기 있었던가. 하기에 인민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담은 가요 《조국찬가》와 같은 훌륭한 명곡이 이 땅에 태여날수 있었다.

진정 가요 《조국찬가》는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참신하고 강렬하며 독특한 명문장, 명선률로 조국에 대한 완벽한 표상을 안겨주는 동시에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인민의 참된 삶이 꽂혀나는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실체험을 통하여 느끼는 절절한 감정을 노래한 새롭고 철학적인 시대의 명곡이 아닐 수 없다.

가요 《조국찬가》는 번영할 조국의 기상을 안고 푸르른 내 나라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갈것이다.

문화성 국장 원영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

(전호에서 계속)

어느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빛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김순옥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나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나의 명의로 김순옥을 초청하였다. 막상 만나고보니 그는 80고령으로 아쉽게도 로환이 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김순옥이 우리 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여섯명 따라왔는데 나에게는 다 서름서름한 초면의 얼굴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그의 입모양이 아버지의 입모양과 신통히도 비슷하였다. 입모양이라도 비슷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김순옥일행을 외국귀빈들이 리용할 숙소로 지어놓은 초대소에 들게 하고 한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편답을 하게 하였다.

안타까운것은 김순옥녀성이 귀가 어두워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것이였다. 발음도 똑똑치 못하고 기억력도 상당한 정도로 나빴다.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은인들중 한사람을 60년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것은 그가 보충해주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것은 내가 보충해주며 장시간 고유수시절을 회상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후대들도 현하죽선생의 운명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현하죽선생이 조선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사업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같은 피줄을 가지고 태여났다고 해서 선렬들의 위업이 후대들에 의해서 저절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갈수 있다.

나는 김순옥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국옥과 오가자에서 우리의 혁명활동을 많이 도와준 문조양, 문숙곧도 함께 만나보았다.

공국옥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대신하여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봉상을 입은 공영의 딸이다. 어느해였던지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여 무송에 들리니 얼굴에 흡집이 생겼다고 남편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영의 안해가 아이를 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이다.

나는 해방직후 평양에서 농민동맹회의를 지도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벽동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영의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다. 공영이 벽동출신이였기때문에 그의 미망인과 딸이 고향에 있을수 있다는 짐작이 들어서였다.

그 대표는 벽동에 공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것만은 사실이지만 공영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락심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은 나타나는데 공영의 유가족만은 행방조차 알수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다.

그 당시 우리는 만경대에다가 혁명자유자녀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있었다.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과 개선인사를 나누고 20년만에 조부모님들이 기다리고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 소학교시절의 동창생들이 찾아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와서 한때 우리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학교 자리에 나의 이름을 떤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고 제기하였다. 만경대는 김장군이 태여난 유명한 고장인데 학교를 하나 큼직하게 짓고 장군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중학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설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향촌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 그들은 눈을 감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자기네 아들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유언대로 조선이 독립되면 꼭 동지들이 남겨놓고 간 자제들을 공부시켜 자기 부모의 뜻을 잊도록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조국을 찾고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만경대에는 중학교가 아니라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혁명자유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유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학원까지 세우겠는가고 하였다. 당, 행정의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혈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국의 산야와 강하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지개혁 후 첫 수확을 해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밀천으로 삼아 만경대에 혁명자유자녀학원을 세웠다.

학원에서 공부할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많은 일군들이 국내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때 수백명의 유자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무들도 그무렵에 림춘추동무를 따라 조국에 나왔다.

어떤 유자녀들은 물감장사나 담배장사 같은것을 하며 살다가 만경대에 혁명학원이 설립된다 는 소식을 듣고 제발로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

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독립군의 후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반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제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국옥이만은 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평안북도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공영의 유가족들의 행처를 수소문하였으며 그곳 일군들에게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아들과 같이 명절을 쇠려고 학원에 내려가 그들이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산나물보따리를 이고 짚신을 끌면서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으로 찾아오곤 하던 공영의 안해의 얼굴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빨던 공국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짜릿한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1967년에야 공국옥을 찾아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국옥의 어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녀인이 김일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남편은 독립군이었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가 하여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공국옥을 찾은 다음 그를 고급당학교에 보냈다. 공국옥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시당과 철도부사적관에서 일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교유수의 김보안도 현하죽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한 사람이다.

김보안은 내가 현하죽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집에는 한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찾아가면 그는 자기와 김형직은 보통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제날 감나무중대의 병사 손풍금수 리금향이가 옮긴 옮은가고 묻는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뜨거움에 목이 메군 합니다.

그도그럴것이 저의 성장의 걸음걸음에 바쳐진 다심하고도 자애로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눈물겹게 어려와서입니다.

주체91(2002)년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던 제가 군사복무중 사고로 한눈을 상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년 후였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꽃나이 처녀시절에 심한 뇌타박파 얼굴에 험한 상처자리, 그보다 더 한것은 한눈을 영영 실명당하였다는 가슴아픈 현실앞에서 저는 앞이 깜깜해집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해빛같은 사랑이 그늘진 저의 마음에 비쳐들었습니다.

동해지구의 어느 한 부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성학원(당시)을 졸업하고 감나무중대에 입대한 두명의 손풍금수중에서 제가 눈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여성의 몸으로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초소에 바치는것만도 장한 일인데 군사복무과정에 눈을 상하였다는것을 알고 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는가고, 그의 눈을 잘 치료해주어야 자신께서 마음을 놓을것 같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여 저는 그해 4월 비행기에 몸을싣고 다른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고있는 안파중심병원에서 250여일간이나 눈을 치료받고 영원히 끼고살번 하였던 검은색안경을 벗었습니다. 3년후에는 또다시 그 병원에서 40여일간의 치료를 받으며 인공눈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수술후유증으로 변형이 와쳐져있던 눈까풀도 두차례나 수술을 받아 원상회복하였으며 하수되였던 오른쪽 눈주위에 대한 성형미용수술도 받았습니다.

치료받는 전기간 그 나라 의료일군들은 저를 보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딸》이 아닌가고 저저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거듭 인민군병사라

고 말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치료를 받고있는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의 눈치료상태에 대하여 수십차례나 알아보시며 해당 나라주재 우리 대사관일군들에게 나의 병사를 말긴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퍽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목청껏 불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본래보다 더 고와진 얼굴로 조국에 돌아온 제가 삼가 올린 편지도 보아주시고 치료전과 치료후의 사진도 보아주시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편지에서 본인은 군사복무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건강이 허락되겠는가고 하시며 저의 건강을 넘려해주시였으며 제가 군사복무를 계속할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주체96(2007)년에 텔레비죤에 나온 저의 모습을 보아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눈치료를 받은것이 알린다고, 연한 색안경을 끼여야 눈도 보호하고 미용적으로 보기 좋을것 같다고, 군력사에 하전사가 안경을 끼는 데는 없지만 금향이만은 안경을 끼게 해주자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알아보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주체100(2011)년에 제가 결혼식을 한다는것을 아시고 결혼식상과 결혼식옷감 등을 보내주시였습니다.

낳아준 부모도 대신 못할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한 사랑으로 따뜻이 품어주시며 삶의 걸음걸음을 친딸처럼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장군님.

정녕 그이는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우리 인민군 병사들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어버이의 그 무한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를.

조선인민군예술학원 교원 리금향



주체화의 동음드높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와 만난 기업소의 일군인 송명호는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주체화된 제철, 제강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출데 대한 파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강철직장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직장에서는 이미 초고전력전기로운영을 개선하고 전기로의 랭각수려파계통과 장입문행각수관로 등을 개조하였으며 미분탄생산공정과 산소-미분탄취입에 의한 정련남비 및 중간남비가열공정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하였다. 최근에는 쇠물남비 아르곤가스취입에 의한 강질제고와 련속조괴결전기 전자유도교반장치를 도입하여 각강생산의 원가를 낮추면서도 그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직장장 박일신은 현존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비하고 그에 맞게 새로운 공정들을 꾸리는 사업의 하나하나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대중이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장에서는 강재생산의 주체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발강판직장과 주원료직장, 내화물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인발강판직장에서는 회전가열로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확대도입하여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봉소철, 망간철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주원료직장에서는 파고철을 압착하는 프레스를 새로 설치하여 로장입시간과 용해시간을 훨씬 단축해가고있다. 그런가하면 내화물직장에서는 지난 시기 만들기 어렵다던 알루미니세멘트연구에서 성공한데 이어 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보산제철소에



련속조괴광정

서는 주체철생산공정을 보다 완성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1, 2호 회전로대보수공사를 앞당겨 끝낸 그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짧은 기간에 회전로들에 산소취입공정들을 새로 꾸려놓았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자력선별기를 연구제작하여 선별공정들에 설치함으로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생산되는 강재들



전선의 질을 더욱 높인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인민 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줄 전 선제품생산으로 세차게 들끓고 있다.

우리와 만난 김석남지배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하여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매 직장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공정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더욱 보강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큰

은을 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선재직장으로 향하였다.

선재직장의 노동자들은 공장의 생산성과가 선행공정인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그들은 지

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던 기성관념에 종지부를 찍고 유색금속소재의 주체화를 위해 공장의 기술자들과 학생들의 협동하에 버려지던 각종 토막선들을 재생리용 할수 있

고순도를 보장하면서도 질지표에 있어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예비와 가능성은 최대한 동원하여 아연도금철선 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구축해놓고 마음먹은 대로 각종 전선류들을 생산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연신직장의 우영판, 리명선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평양건축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협동하에 버려지던 각종 토막선들을 재생리용 할수 있

는 강선용접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케블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장되어있던 설비들을 대담하게 개조한것은 물론 다기능절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만들어 각종 규격의 전선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

절연직장의 노동자들도 고무련속류화기의 수감장치에 터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의 그 어느 직장, 그 어



느 기대에 가보아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전진하는 이곳 노동자들의 투쟁열의를 느낄수 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질좋은 각종 전선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실력있는 교육자집단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해양지질학강좌는 실력있는 교육자집단으로 대학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강좌는 조직되어 오늘까지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파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였다.

강좌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을 가진 관록있는 교원들과 20대, 30대에 박사 등의 학위를 가진 새세대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장서익 선생은 강좌를 개척한 교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여든살을 넘기였지만 자기가 키운 제자들과 함께 교단을 지켜가고 있다.

교육사업에 한몸 깡그리 바치려는 로교원의 교육자적량심은 그대로 교원들의 거울로 되고 있다.

장서익선생의 제자들인 강좌장 교수 박사 김통홍선생과 교

원인 박사 허응룡선생을 놓고 보아도 그리하다. 그들 역시 승인 장서익선생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자기들의 량심을 다 바쳐가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우도록 하여주고 교육자로 내세워준 나라의 고마움에 보답해 가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교원의 실력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자기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학생들을 능력있는 인재들로 키워내고 있다. 그 과정에 류명철과 김형식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교원, 연구사들이 박사로 자라났고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들에서 강좌의 학생들이 1등을 한 것은 이곳 교육자들의 혁신적인 노력과 뛰어놓

고 생각할수 없다.

강좌의 교원인 박사 김형식 선생과 현동수선생을 비롯한 교원들의 역할도 다를바 없다. 그들은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부단히 개선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훨씬 높이였다. 뿐만 아니라 강좌의 젊은 교원들의 높은 실력 또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실지 이곳 교육자집단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육자들의 높은 실무적자질이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 강좌에서 지난 기간 해양지질학부문의 새 파목들을 하나하나 개척하였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 참고서들을 비롯한 가치있는 도서들과 사전, 도감 등을 집필하여 학생들의 교수교양에 이바지한 것 역시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강좌의 교원들은 과학연구사

연구사업에 열정을 바쳐간다.



학생들의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현실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지하초염수개발에서 성공한 것이다.

사실 이곳 강좌집단이 이 연구에 달라붙었을 때 난관은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초염수가 나라의 지경내에는 없는 것으로 공인되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소금생산와

상식

조선민족의 이름짓는 풍습

우리 인민들은 자식이 태여나면 이름짓는 것을 가문의 큰일로 여기였다.

예로부터 아이가 태여난 다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는 이것을 아명이라고 하였다.

아명은 보통 아이가 태여나서 7일 안으로 지어주는 것이 풍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출생할 아이

의 이름을 지어두었다가 아이가 태여나면 인차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사람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되여있다.

성은 아버지의 피줄을 따른 것으로 아들은 물론 딸들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불였다.

이름은 외자이름도 지었으나 대부분 두자이름을 지었다.

에 브롬파 가성소다생산망도 열어놓았다.

나라에서 해상에 처음으로 일떠세운 고암-답촌철길을 건설하던 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명하여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 것,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명한 것, 바다광물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연구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한 것 등 그들이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이곳 강좌의 교육자들은 한 사람같이 《교육자적 량심을 지닐 때 높은 실력을 소유할 수 있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제도 그하였지만 오늘도 이곳 강좌의 교육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실천해가며 실력있는 집단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 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절찬받은 3중주단

지난해 조국의 경상유치원의 어은금3중주단이 로씨야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벚들을 맞이한다》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무대에 나선 6살 난 신정현, 박예희, 장예정어린이들은 민족악기인 어은금의 맑고 우아한 매력적인 음색과 다양한 연주법으로 조국의 노래 《웃음많은 우리 집》을 특색 있게 형상하여 관중들과 심사원들을 놀래웠다.

그후 모스크바에 있는 채이즈스끼명칭 음악당에서 진행된 축전페막공연에서 그들의 공연은 보다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주며 절찬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흥분된 관중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았던지 축전판례상 참가단체들은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한번만 출연하게 된 판례를 깨고 그들은 3차례나 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세계명곡 《세상은 좁다》에 대한 그들의 연주가 끝났을 때 관중들의 절찬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은금3중주를 한 어린이들처럼 그 나이에 작품을 형상하고 더우기 세계적인 명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놀라움이 커진 것이다. 하기로 공연이 끝난 후 로씨야의 축전 조직위원회 성원들과 관중들은 어린 재간등이들을 껴안아주며 음악신동들의 예술적기량과 연

경상유치원의 어은금3중주단은 로씨야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벚들을 맞이한다》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기교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어은금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음색과 울림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세계적인 예술신동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조선의 경상유치원의 조기음악교육은 최고의 수준이다, 조선의 훌륭한 교육제도가 뛰여난 재능동아들을 키워냈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이 말한것처럼 어은금3중주를 한 어린이들의 높은 예술적기량과 연주기교는 조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자들의 노력이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신정현, 박예희, 장예정어린이들은 군인,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난 어린이들이지만 나라에서는 부모들도 모르고있던 그들의 작은 재능의 꽃을 찾아내고 귀중히 여겨 경상유치원에서 배움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었다.

그들의 재능을 꽂고위주기 위해 바친 교원들의 노력 또한 커졌다.

처음 어린이들이 어은금을 배우기 시작한것은 4살때부터였다고 한다. 아직은 사물의 리치를 잘 가려볼줄 모르는 시절이였지만 경상유치원의 교양원들은 그들의 동심에 맞는 교

이런 노력이 있어 어린이들은 어은금의 퉁김주법과 떨림



수교양방법을 찾아내여 음악의 기초를 알기 쉽게 배워주었고 점차적으로 어은금의 주법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 과정에는 육체적조건이 따라서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고 손

감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또 소심성에 사로잡혀 대담하게 연주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하지만 교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심정으로 그 모든것을 극복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동심에 맞는 교

소리주법은 물론 어려운 훑기주법 등의 다양한 주법들을 소유할수 있었으며 종당에는 그 어떤 작품도 훌륭히 형상해낼 수 있는 연주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월한 무료교육제도에서 교육사업을 량심과 헌신, 애국으로 간주하며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런 교육일군들이 있어 어은금3중주단의 재간등이들과 같은 음악신동들이 자라나 국제무대에서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상식

간단한 건강섭생법

사람이 건강하려면 아침에 잘 먹고 점심에 배불리 먹으며 저녁에 적게 먹어야 한다.

저녁에는 휴식하므로 저녁식사를 많이 하면 음식물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하면서 고지혈, 관상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이 쉽게 발생한다.

그리고 섭생에서 중요한것은 남새와 파일을 많이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것이다.

또한 소금과 기름, 사탕을 적게 먹어야 한다.

그밖에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 더운물 2고루를 마시고 식사전후에도 국물이나 물을 마셔야 한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점심식사후 적당한 잠을 자며 밤에 잠자리에 일찍 드는것도 건강에 유익하다.

* * *

천연아미노당 《복명》의 개발자들



생산된 의약품들을 놓고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연구사업차로 함경북도 청진시의 동해바다기슭의 여러 지역을 다녀온 후 철건무역회사 림춘목의 머리속에서는 붉은대게에 대한 생각이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그에게는 붉은대게의 껌데기가 쓸모없이 벼려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었던 것이다.

당시 그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계의 껌데기에 인체에 좋은 영양성분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나 알고 있었지 그것으로 사람들의 병치료와 예방에 유익한 약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붉은대게의 껌데기를 가지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약을 만들수 없을가 하고 생각하던 그는 그에 도움이 될만한 기술자료들과 옛 문헌들을 펼쳐들었다. 그 과정에 붉은대게의 껌데기에 풍부한 키틴성분에서 천연아미노당을 추출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개발조를 뜯고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연구를 시작한지 3년만에 그들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성파의 하나인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글루코자민을 99.8%의 순도로 추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순도높은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글루코자민을 원료로 하여 천연아미노당복합주사약 《복명-1》을 개발하고 림상실천에서 치료효과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쥐와 돼지 등 동물들에게 이 약물을 주입하여 수백차의 실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천연아미노당이 고지혈증과 뇌혈전을 비롯하여 지질을 낮추는데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히 증명하였다.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10여개의 병원들에서 고지혈증과 뇌혈전환자들에게 이 약물을 주입한 결과 치료효과는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자기들이 개발한 약물이 사람의 건강을 정상으로 복명제약소에서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 김일화



김일화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들 가운데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공훈체육인 김일화도 있다.

그가 공화국의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주체104(2015)년과 주체106(2017)년에도 공화국의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되었다.

돌동작 하나를 익히는데만도 곱질의 반복동작을 하였고 남

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복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들은 그것을 공업적방법으로 계렬 생산하였다.

그들은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심장혈관계 통질병과 간질병, 당뇨병, 신경계통질병 등에 이용되는 의약품뿐만아니라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비롯하여 그 품종을 확대해나갔다.

지금 그들이 개발한 천연아미노당복합주사약, 글루코자민콘드로이틴교감파 복명국소지혈물약, 천연아미노당살결물 등은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얼굴을 보면 사색형에 가깝고 체격을 보면 무용선수같기도 하지만 일단 경기장에 나서면 높은 조약과 강한 힘으로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맞다드는 상대를 무조건 타승하는 김일화선수는 지금까지 국내외경기들에서 근 40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파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의 감독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장경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화선수는 자기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다. 어떤 때에는 그 요구성에 나도 탄복하군 한다.》

14살에 남들보다 늦게 태권도의 세계에 뛰여든 일화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따라앞서기 위해 훈련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일화선수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태권도감독, 지도교원을 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키운 유능한 태권도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민

첩건무역회사에서 복명개발자들중의 한사람인 림춘목은 《사색과 탐구는 버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강렬하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루할수 있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족의 넋파 기상을 한껏 떨치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펼펼 휘날리며 기쁨의 눈물짓던 모습이었다.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는 세계의 하늘가에 저절로 날려지지 않는다.

일화선수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다. 자기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를 부르며...

강한 정신력은 육체적극한점도 물러서게 하였으며 자기자신을 이기게 하였다.

그는 마침내 뛰며높이앞차기, 360°돌려차기 등의 특기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면서 목표물을 단 한번에 정확히 격파할수 있게 되였다. 그후 그는 제17차, 제19차,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기의 특기기술을 남김없이 발휘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하여 많은 금메달과 컵, 개인 기술상을 받았으며 공훈체육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결코 저의 육체적조건이나 특기기술이 가져온 우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것을 사랑할줄 모른다면, 자기것을 빛내이려는 강렬한 마음이 없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화국기발을 창공높이 날릴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금메달로 우리 태권도의 우수성과 위력

을 세계만방에 더 높이 떨쳐가겠습니다.》

그는 오늘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들에 대표로 내세워준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흥가 방인철외삼촌 앞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언제 한번 뵈온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생존해 실 때 늘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인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만 보고싶어집니다.

더우기는 4년전에 동생 춘영이가 중국에 갔을 때 나이많으신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가 시신경염이 온 춘영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에 좋다고 하는 약을 구하느라 마음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혈육의 정은 가를수도 막을수도 없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후에 춘영이는 저에게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가 그때 많은 돈을 썼을것이라고 자주 말하면서 자기가 체험해보니 조국의 보건제도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조국에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살다나니 다른 나라에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현실을 아마 춘영이는 처음 체험하였을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국의 사랑을 너무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참, 그때 춘영이는 외삼촌이 저를 몹시 보고싶어한다고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단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타악기를 잘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기쁨을 드렸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아버지만 한 높이에 이르자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조국에서는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저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었습니다. 날마다 커가는 사랑을 받아안을수록 저는 군사복무시절 여러 군무자예술축전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면 영광의 날들과 금시계표창을 받아안던 일이 가슴속에 되새겨져 지금도 눈시울이 젖어들군 합니다.

그 대해같은 사랑에 일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저는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싶

은 일념뿐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도 앞으로 크면 조국의 짐이 되지 말고 그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하군 합니다.

외삼촌, 저에게는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맏아들 철우는 지난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참가하였는데 공연기간 몸도 마음도 더 자란것 같습니다. 한번은 열이 나는것 같아 치료를 받은 다음 훈련에 참가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자기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 할수 없다는것이였습니다.



자기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올해에 철우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인민군대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들의 결심을 지지해주었습니다. 그 애도 성장하면서 자기가 늘 공기처럼 마시는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소나마 알게 된것 같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 편지에 담을 내용은 많으나 이만 쓰려고 합니다.

한번 조국에 꼭 오십시오. 조국에 오시면 저와 저의 둘째아들 현우가 연주하는 타악기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외삼촌, 외삼촌어머니와 기쁨을 함께 나눌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 8인민반
김주영조카로부터

애국의 열매 주렁지는 땅



김광윤박사

이른아침이였다.

여느때와 같이 청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출근길에 오른 농업연구원 자원식물연구소 부소장 김광윤선생은 어느 한 기업소구내에서 울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최근 조국인민들모두의 심장을 격동속에 끊게 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끊게 하고 애국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게 하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조용히 따라부를수록 그는 나라의 상징이며 존엄인 국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에 북받쳐올랐다.

47년전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안고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로부터 7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어느 하루한시도 마음 속에서 그 기발을 내리워본적이 없었던 그였다.

언제인가 그는 에짚트의 수도 끼히라에서 진행된 학술연구회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세계의 수많은 식물학자들과 연구사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그는 우리나라에 흔한 유채와 수유, 페마주와 같은 식물의 기름에서 생물디젤유를 생산하는 기술과 목화씨기름생산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세계5대식물성기름의 하나로서 목화씨기름의 약용가치가 늘어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그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

았다.

회의참가자들의 그 모습에서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과학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였다.

그와 동시에 조국의 품에 안겨 흘러온 잊지 못할 나날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를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되어 그가 처음으로 받은 연구과제는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있는 기름 원료식물의 주요성분을 분석체계화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그는 백두산과 칠보산, 오가산 자연보호구를 비롯하여 조국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리였다. 그때 그는 과학연구사업에

가정에서



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조국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안은 그였다. 근 40년간 과학탐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는 나날 그 사랑은 언제나 그의 결에서 떠날줄 몰랐다.

하기에 그는 알게모르게 받아안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저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갔으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름지어주신 단나무열매에서 붉은색천연식용색소를 얻어낸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식물자원에 의거하여 푸른색과 노란색, 보라색과 같은 천연식용색소원료들을 찾아냄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에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식료품의 여려가지 색갈을 보장할수 있는 관건적인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

이역땅에서 나서자란 그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준 조국의 품

다. 그는 그에 그친것이 아니라 색소의 국가규격화를 실현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았으며 시제품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올려 기쁨을 드리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나라의 기름작물들을 빠짐없이 분석표준화하여 그 리용방도를 찾았으며 색소식물과 농업부산물 등

의 성분도 밝혀내여 인민생활 향상에 빠짐없이 리용되도록 과학적인 담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목화씨기름에서 생물활성이 높은 고시풀의 분리정제 기술을 확립하고 목화씨기름의 정제방법을 해결하여 목화씨식용기름을 제품화한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가치있는 연구성과의 하나였다.

이역땅에서 나서자란 그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준 조국의 품

에서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로 성장한 그의 한생은 그대로 이 땅에 주렁진 하나의 애국의 열매와도 같았다.

돌이켜볼수록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걸어온 나날은 그에게 있어서 궁지로운 나날이였다.

하기에 그는 홍안의 그 시절 공화국기를 가슴에 안고 조국으로 가는 배길에 올랐던 그때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걷고있다.

…

이 아침 김광윤부소장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마련해갈 결의를 안고 《우리의 국기》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출근길을 힘있게 달그쳤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잔치에서 둘러리의 유래

둘러리는 봉건사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신부를 단장시켜주고 그를 도와 혜택을 잘 지키도록 거들어주던 수모에서부터 유래된것으로 전해진다.

수모는 봉건사회에서 천민출신으로 남의 집에서 살며 그 집안의 잔일을 해주던 녀자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수모는 그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몸단장을 거들어주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성의를 다하군 하였다.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에도 수모는 신부를 따라 신랑집에 함께 동행하여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신랑집에서 신부가 요기상이나 큰상을 받을 때에도 수모는 신부

가 음식을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거들어주었으며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릴 때에도 신부의 화장을 고쳐주고 옷매무시도 바로 잡아주었다.

시부모에게 절할 때에도 수모는 신부의 옆에서 그를 부축하여주었다.

낯선 신랑집으로 간 신부에게 있어서 수모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였다.

수모를 두는 풍습은 조선봉건왕조시기애 생겨났다.

그후 이 풍습은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과정이 촉진되고 19세기말, 20세기초에 혼례가 간소화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랑신부의 옆에 서는 둘러리형식으로 변화되었다.

* * *

군민의 정 넘치는 고장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국에서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사이에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미풍이 날로 더욱 꽂펴나고 있다.

평안남도 북창군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인 김

성철의 말에 의하면 최근 군에서는 원군사업이 그 어디에서나 활발히 벌어지고 군인들은 그들대로 군내인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찾아하여 군민의 정을 보다 두터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모습을 보자면 북창화력발전련



군인들에 의해 건설된 다리(우)와 타아유치원(아래)



합기업소에 먼저 가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마침 기업소에서는 발전설비증설대상공사를 끝낸데 이어 살림집건설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한창이었다. 군민의 정을 꽂펴워가는 자기들의 실생활을 담은 공연은 시종 사람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자력갱생직장로동자 김원소가 읊은 자작시 『우리 군대를 위함이라면』은 인민을 도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군인들의 정신세계와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시가 감동적이라는 우리의 말에 김원소는 시를 잘 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인민을 위해 바쳐가는 군인들의 수고를 다 담지 못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소도 그렇고 자기 가정에서도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군인들을 찾아가곤 한다고 말하였다.

군인들을 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군인민병원의 의사, 간호원들 속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얼마전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했던 두명의 군인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다시 초소에 세워주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보약과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계속 초소에 보내준다는 그들이였다. 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진정을 바쳐가는 그들이 무척 돋보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군안의 유치원과 학교 등의 건설에 바쳐진 군인들의 노력에 비해 볼 때 너무도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군인들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창조물을 돌아보았다. 먼저 찾은 곳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타아유치원이었다. 결불안이라고 내외부가 얼마나 잘 꾸려졌는지 이곳 사람들은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현대적이면서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주기 위해 군인들은 설계상의 요구대로 건설의 질을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더 좋은 교구비품들로 꾸려주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였다는 이곳 일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

금을 울려주었다.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이곳 어린이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야외 배구장과 북창소년회관도 돌아보았다.

소년회관 지도교원 김리향은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회관을 번듯하게 꾸려준 군인들은 자주 찾아와 도와줄것이 없는가를 알아보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찾아 퇴치해주길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남상리에 새로 건설한 남상고급중학교와 남상군민다리를 돌아보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군인들의 마음을 더 잘 알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색있게 꾸려진 중학교와 다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후더워졌다. 보다 감동을 자아내는것은 군인들이

북창군 읍거리의 일부



학교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교원들을 생각하여 집들도 꾸려주고 리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다리도 여러곳에 건설해준다심한 진정이었다. 하기에 이곳 교원들과 학생들은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글작품들과 미술작품들, 원호물자들을 마련해 가지고 병사들을 자주 찾아가고 있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닌 군내주민들도 그런 마음을 안고 군인들을 찾고 찾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군인들의 창조와 유훈에 의해 변모되는 군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인민을 도우며 군민의 정을 꽂펴워가는 이 고장의 모습이 그대로 조국의 참모습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마저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지원증서들에 깃든 사연

조국에는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서동 51인민반에 사는 김철남, 유성옥부부도 있다. 그들의 가정을 찾는 사람들은 방안의 한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100여개의 지원증서들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그것은 증서의 개수가 많은데도 있지만 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지원증서들마다에 자기 가정보다 나라를 위한 일에 공민적량심을 다 바쳐가고 있는 그들부부의 깨끗한 마음에 감동되어서이다.

그들이라고 남달리 살림이 넉넉하여 그렇게 한것은 아니다. 그런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들이 처음 지원사업에 나섰을 때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시기였다고 한다. 당시 가정을 이룬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나날은 많은것을 알게 한 과정

지원품을 마련하고 있는 김철남(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유성옥(왼쪽에서 두번째)



이였다.

고난을 겪어보아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그들부부는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받아온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가 하는것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을 찾아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생활을 깐지게 하여 저축한 자금을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펼쳐진 여러가지 사업들에 지원하였으며 매일이다실이 도안의 건설장들을 찾아가 성실한 땀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는 사업도 물심양면으로 도와나섰다.

그러다나니 미처 가정을 돌보지 못해 자식들의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자식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썼다.

하기에 그들부부는 자식들과 함께 파찰을 모아 제강소들에 보내주기도 하고 과자나 공병 등 어느 하나 버리는것 없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두 수집하여 공장들에 보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다 자라 인민군대에 나갔을 때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그들부부는 쌀독을 열어보다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아들들이 있을 때에는 열흘안팎에 비군 하던 쌀독이 자식들이 군대에 나간 후부터는 도무지 축나지 않았던것이였다.

그것을 보며 그들부부는 아직 자기들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하여 마음이 개운치 않았고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 바친다는 지성에 공백이 있는것처럼 여겨졌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지원목표를 보다 높이 세웠으며 군대에 나간 자식들의 이름으로도 지원품을 보내기로 마음다지였다. 그리고 부피두툼한 『우리 가정수첩』의 첫 페이지에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라는 글을 써넣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찾았으며 그때마다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해 가지고간 진귀한 꽃씨들과 백도라지, 관리

서로 위해주는 동포부부

지난해 9월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이 월향전시관을 찾았을 때였다.

많은 동포녀성들이 화장품매대를 비롯한 여러 매대들에서 상품들을 고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한 여성만은 술매대에서 조국의 이름난 술들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호기심이 부쩍 동한 우리는 그 동포에게로 다가갔다.

알고보니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흑룡강성 대경시 지부장 리경숙동포였다.

그는 우리의 얼굴표정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미소를 띠우고 자기 남편에게 줄 범뼈술을 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세대주가 특별히 술을 좋아하기에 조국방문기념으로 샀습니다.』

부부정이 각별한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리경숙동포는 머리를 끄덕이며 지나온 나날을 감회 깊이 돌아켜보는것이였다.

리경숙동포가 주체74(1985)년에 처음 지부장 사업을 할 때였다.

그의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다. 동포들을 조직에 더욱 묶어세우고 그들에게 민족의 냇을 심어주며 조국을 알도록 해주면서도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는 늘 밤이 짙어서야 집문을 열고 들어서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가 가정에서 해야 할 생활의 빈구석을 메꾸어주곤 하였다.

그의 남편도 당시 어느 한 운수공사에서 일

군으로 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바쁘기는 매 한가지였지만 안해에게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가정일을 도맡아하였다. 그러한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안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걸어지지 않았는가고 편잔을 할 때면 리경숙동포의 남편은 종이장도 맞들면 가벼운데 서로 돋는거야 응당하지 않는가고 말해주군 하였다고 한다.

실지 동포의 남편은 짬시간이 나면 료리책들을 보며 료리기술을련마하기도 했고 자식들의 교육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조국방문길에 여러 출판물들을 구입하여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그들이 어려서부터 조국을 알고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말없는 방조는 리경숙동포에게 큰 힘이 되였고 그것은 그대로 지부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지부일이 잘되어나갔다.

그 나날 대경시지부는 총련합회적인 모범지부로 되였으며 그의 가정은 모범가정으로 텔레비죤으로도 소개되었다.

『제가 지부사업을 잘해올수 있은것은 미덥고 정다운 저의 남편이 뒤받침해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리경숙동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합劈 실려있었다.

이제는 손자들을 거느린 할머니가 되였지만 여전히 그는 남편과 힘을 합쳐 청춘의 마음으로 지부사업을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십

도구들을 수많이 기증하였다. 그들의 이런 충정심은 백두산과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과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온 나라의 곳곳에 뜨겁게 어리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도 비껴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쉽지 않은 부부』, 『애국자가정』이라고 친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많이 찾아 그들부부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걷는 그들부부의 애국의 길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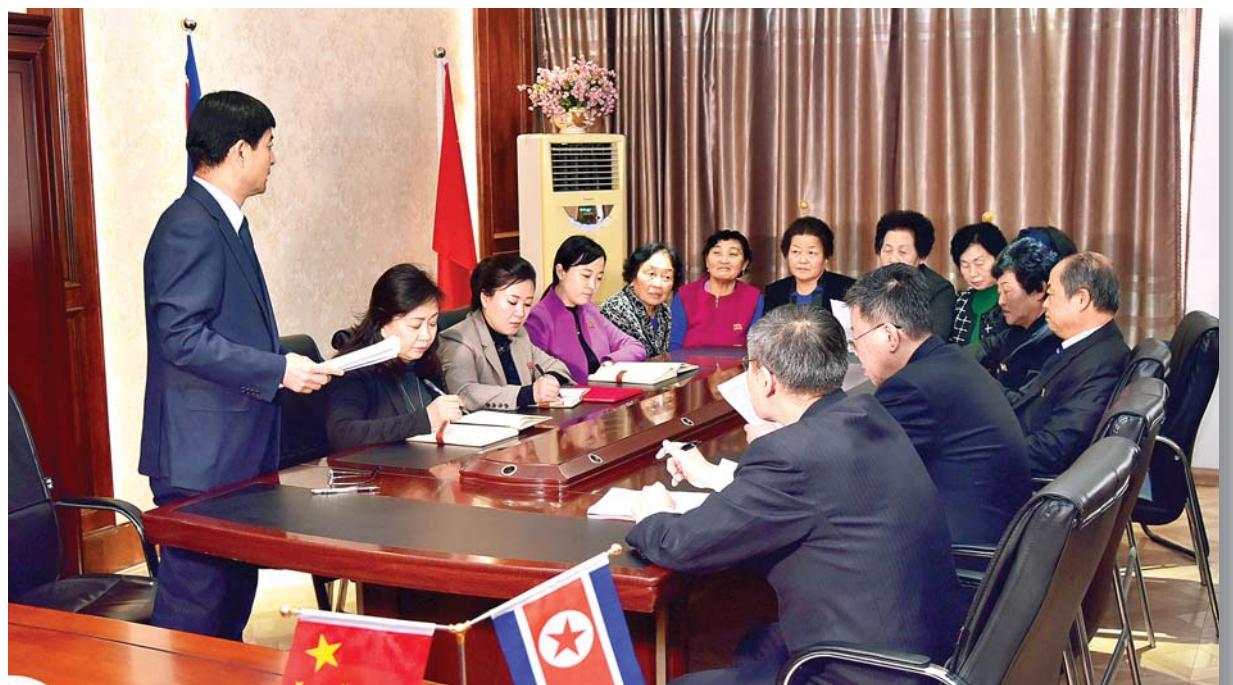


다함없는 흡모와 그리움속에

지난 2월 우리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와 그리움이 온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

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조국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와 제23차 김정일화축전, 제26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을

행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총련합회일군들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평양과 지방에서 진행되었다.

광명성절경축행사는 조국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대히 진행되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는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와 총련중앙강연회, 총련중앙사진전시회, 예술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국조선족

조국통일상파 증서가 전달되었다.



흡모의 마음안고



기업가협회 성원들, 심양시에 살고있는 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일군들, 각계 총동포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료녕성과 심양시의 중국의 인사들도 행사에 초대되었다.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에서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조국의 크고 작은 명절들마다 해외



김정일화전시장을 돌아보았다.

동포들을 꼭꼭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고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였으며 동포들의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국가수 훈의 영예도 안겨주시며 해외동포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한 재중동포들에게 조국통일상과 중서가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경축연회장에서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전달되었다.

보고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리시기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화폭을 담은 기록 영화도 감상하였다.

보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광명성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신 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과 여러 사진, 도서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아그리워》, 기악중주 《백두의 말발굽소리》, 남성독창 《신념파 의지의 찬가》, 녀성2중창 《칠령아래 사파바다》, 바이올린독주 《매혹과 흡모》, 설화와 합창 《우리의 국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광명성절을 경축하여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돌아보는 동포들

연변가무단 가수 최경화동포는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에 출연하였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가슴속에 차넘치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셔온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들어 통일애국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를 비롯한 산하조직들에서도 다양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



산하조직일군들이 경험을 나누었다.

한 다함없는 흠토와 그리움속에 맞이한 광명성절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1)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인류문화의 대재보》, 《세계적인 대결작》이라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 행성을 뜨겁게 달구었다.

하루이틀도 아닌 몇달동안 무더위와 비바람속에서 땀흘리며 온넋파 열정, 심신을 바쳐 겨레와 인류에게 그토록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조국방문기간에 이 공연을 두번이나 관람하는 행운을 지니였다. 그때 받은 흥분과 강렬한 느낌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는 동방의 신비한 나라로 알려진 조선의 모습이 응축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공연을 보면 조선의 얼굴이 보이고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알수 있다.

천만이 하나가 된 단결의 나라

5월1일경기장이 자리잡고있는 릉라도는 평양의 명승지이다.

알고보니 여기에는 매우 흥미 있는 전설이 깃들어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릉라도는 대동강중류인 성천읍판내의 비류강(대동강의 지류)에 있었는데 몇백년전 큰 홍수때 평양의 지금 위치에로 떠내려왔다고 한다.

릉라도가 성천땅에 있을 때

땅이 기름지고 오곡이 잘 자라 근방농민들이 모여들어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런데 성천에 농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데 이꼴이 난 새 부사가 오면서 사람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 농민들은 호랑이가 나타나 그 부사놈을 꽉 물어가든지 섬이 성천읍경내를 아예 벗어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군 하였다. 어느해 여름 큰 장마로 하여 비류강은 바다처럼 범람하였다.

이때 릉라도는 비류강의 사품속

에서 움씰움씰 움직이더니 섬전체가 배처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떠내려가던 섬은 청류벽앞 대동강 한복판에 뚝 떳어섰다. ...

바로 이런 전설이 깃들어있는 섬인 릉라도에 하늘에서 내려앉은 은백색의 대형락하산모양으로 웅장하게 솟아난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해 9월 9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첫막이 올랐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공화국기가 오를 때 나의 심중은 그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중엄함과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처럼 황홀한 공연을 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였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빛나는 조국》공연, 그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한 공연이라고 나는 말하고싶다.

서장 《해솟는 백두산》과

《사회주의 우리 집》, 《승리의 길》, 《태동하는 시대》, 《통일삼천리》, 《국제친선장》 등의 장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조선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70년 역사와 밝은 미래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친 공연은 높은 사상성과 독특한 예술적향기를 내뿜으며 모두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역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체조와 예술의 결합으로 변화무쌍한 황홀경을 펼치는 《빛나는 조국》의 매력은 한마디로 표현 할수 없다.

거대한 립체적공간속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룰동과 기백있는 체조, 풍만한 민족적 정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바닥형상과 공중교예예술의 유기적 결합...

그중 근 2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배경대는 정말로 놀라운것이였다.

이번 공연에서 흥미로운것은 공연시작을 앞두고 진행되는 배경대의 간단한 훈련동작이였다.

나와 함께 앉았던 동포들과 외국관광객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국제적인 개페막행사들에서 보아오던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였던것이다.

재중동포 리희진

—(인)(상)(기)—

자기 힘이 제일이다

나는 고국에 올 때마다 새로 운 힘을 받아안군 한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멋쟁이 새 거리들과 건축물들이 일떠서 있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활기애 넘쳐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적대세력들이 고국에 대해 어찌구저찌구해도 고국인민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할바를 다하고 있다.

나는 고국인민들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이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려명거리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옹근하나의 거리를 몇년도 아니고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고있는것이다.

해외에서 살면서 고국의 이런 전변을 전해듣거나 텔레비죤으로 볼 때면 절로 기분이 즐거워지게 된다.

재속에서 건설했다는것이 정말로 놀랍다.

고국인민들처럼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한 인민은 아마 없을것이다.

고국인민들의 말에 의하면 자력갱생의 정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었다고 한다.

절제위인들의 령도밑에 낸대를 이어오며 계승된 이 정신이 있었기에 고국인민들은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바로 이 정신에 현대과학기술이 안받침되어 고국은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있는것이다.

해외에서 살면서 고국의 이런 전변을 전해듣거나 텔레비죤으로 볼 때면 절로 기분이 즐거워지게 된다.



워지고 민족적긍지가 가슴에 차넘치는것을 어쩔수 없다.

나는 이런 고국을 위해 특색 있는 기여를 할 결심이다.

중국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부회장 홍종국



고국의 밝은 앞날이 기대된다

나는 교육자이다.
직업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그 어디에 가든 교육부문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

고국을 방문할 때 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지난 기간 여러차례 고국을 찾았다. 그때마다 나는 고국의 교육실태에 대해 투시해보았다. 그 과정에 나는 고국에서 교육부문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킨다고 나는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는 기회에 고국의 교육수준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었다.

평양교원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세계적수준

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교수활동에 리용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모두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집체적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최근년간 고국에서는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성과들을 확대해나가고있다고 한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중국에 사는 나의 친구들도 고국의 교육현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싶어 한다.

나는 후대교육에 국가적투자를 아끼지 않는 고국이 가까운 앞날에 더욱 발전될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중국 길림시 대화외국어학교 교장
김련원

매혹은 어디서

지금 세계의 이목은 고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것은 고국에 국제사회계에서 리상형의 지도자로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이께서는 로숙한 세계정치가들도 무색케 할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원래 정치인의 능력은 정치년 한에 비례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이다.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정치계에 오래 몸담글수록 보는 눈이 높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며 정치수완도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큼직큼직하게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면 상상밖의 놀라움과 매혹을 불러일으킨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첫 순간부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큰 관심을 모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예술로 불과 수년기간에 조선민족에게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해주는 최강의 힘을 안겨주시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최근년간 교국이 이룩한 성과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몇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기존공식들을 타파하고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인민들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관광지들도 많이 꾸려졌다.

지난해 9월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많은 외국인들이 고국을 돌아보고 세상

에 이런 곳도 있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저저마다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들을 퍼려하였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치파동과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재재압박속에서도 용의주도하시며 파격적이고 성공적인 정치를 펴나가고 계신다.

그이이시야말로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담력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이는 솔직하시고 다정다감한 인민적 풍모를 체현하신 정치가 이시다.

특히 인민들을 대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친절하고 소탈하시다.

몇해전 라선시가 큰 물 피해를 입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중대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토의하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 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끌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달려 교국의 최북단까지 찾으신 그이께서는 큰 물 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았은 라선시 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 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한몸 진토가 된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고국을 위해 나의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그때 라선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나도 그 소식을 전달받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회사종업원들과 함께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갔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런 군대를 키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전히 매혹되었다.

진정으로 피끓는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디에도 견줄수 없는 매혹으로 온 심혼이 젖어드는 것을 어쩔수 없는 나이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온몸에 체현하신 그이, 비범하고도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그이에게 나는 저도 모르게 매혹되었을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쳐 그이를 받들고 싶은 마음속충동을 억제할수가 없다.

그분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고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다시금 가다듬고 지금도 애국사업에 몸을 잠그고 있다.

이 한몸 진토가 된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고국을 위해 나의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라선룡호산해개발회사 사장 최현룡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 (2)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학교건축과 객사, 루정 건축 등도 자기 발전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 학교건축으로서는 봉건통치배들의 후비들을 양성하던 향교와 서원이 있었다.

향교와 서원은 유교적 규례에 따른 일정한 도식에 기초하여 건물들이 배치되고 건축장식이 소박하게 되어 있었다.

향교는 보통 주민지변두리에 많이 건설하였으며 학교에는 높은 담장을 두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구획과 제를 지내는 대성전, 학생기숙사인 동재, 서재로 구획을 지어 배치하였다. 향교의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검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원은 자기 지방출신 유학자의 집을 개조리용한 서원과 일정한 계획에 따라 새로 건설한 서원, 이렇게 두 가지 류형이 있었는데 첫째 류형은 교육환경에 적응하게 주택을 개조한 것이며 둘째 류형은 향교의 축소판으로 건설되었다.

대표적인 학교건축물로서는 넝변향교, 개성 숭양서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객사와 루정건축도 발전하였다.

객사는 중앙에서 오는 사신과 지방관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도시안에서는 풍치 좋은 언덕위에 또는 아득한 곳에 건설되었으며 도시주변에서는 강기슭의 아름다운 곳에 건설되었다.

대표적인 객사로서는 평양 대동관, 성천객사(동명관) 등을 들 수 있다.

루정은 주로 도시의 명승지, 성곽, 궁전, 절간, 객사 등과 여러 정원들에 건설되었다.

지형을 재치있게 리용하면서 자연풍치와 건축을 훌륭히 결합시키고 기능이 복잡한 크고작은 건축물들을 잘 조화시킨 객사들과 루정건축물들에 리용된 건축수법들은 우리 나라 민족건축술을 풍부히 해주고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석빙고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석빙고들은 맑은 물원천지와 가까운 곳에 반지하석조구조물로 되어 있었다. 지금 남아 있는 석빙고는 모두 18세기의 것이며 대표적인 석빙고는 황해남도 해주석빙고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불교건축이 성행하던 이전시기와는 달리 절이나 탑과 같은 불교건축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국가의 통치리념으로 유교성리학을 적극 내세우고 불교를 제한하는 중유배불정책을 실시하면서 15세기초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절간만 남겨두고 모두 없애버리도록 하였으며 16세기 전반기에는 수도 한성의 절간들을 없앴으며 중이 한성에 들어오는 것 까지 엄금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을 위한 불교의 협조적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절간건설을 일정하게 진행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건설된 절간건물들 중에는 임진조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이 파괴소각된 터에 다시 절간들을 복구한 것이 많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절간은 거의 모두가 산지에 건설되었다. 그러나나니 평지절간과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보이였다. 절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심이 깊게 형성되었다. 깊숙한 골짜기를 따라 산굽이를 돌고 심지어 내물을 가로지르면서 여러 개의 문들이 놓이기도 하였으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전앞으로 여러 개의 문들이 겹겹이 놓이였다. 이러한 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 금강문 등이었는데 절간에 따라 이런 문들이 2~3개가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절의 구성도 복잡해졌다.

절건축에서는 기암절벽과 산봉우리, 맑은 물과 폭포수 등 자연풍치를 건축환경 조성수단으로 리용하여 자연과 건축을 재치있게 결합시키며 지형조건에 맞게 건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치하면서 구성배치에서 다양한 건축형성상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나무구조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 건축사상 가장 높은 두공구조를 창조하고 건물장식조각과 단청장식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였다.

이와 함께 절구역에는 부도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많이 건설되었으며 비석이라든가 무덤앞에 주로 배치되는 장명등도 보다 발전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민족건축의 여러 분야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중세건축사를 보다 풍부히 하고 민족의 창조적 슬기와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끝)

민족의 자랑—민속무용 《상모춤》

얼마전 우리는 조국을 방문한 중국 료녕성 료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비서장 정홍원동포로부터 한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나오는 상모춤을 참 인상깊게 보았었는데 《금수강산》잡지에 민속무용 《상모춤》을 꼭 소개해달라는것이였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이번 호에 상모춤에 대한 이야기를 펴놓을가 합니다.

누구나 상모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농악무에 대한 표상부터 가져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논농사를 지어온 황해남도 연백벌 지역의 농민들이 즐겨온 연백두례, 연백농악무에서 기본은 상모춤입니다.

그러한 농악무의 춤구성과 놀이방식, 춤동작들에는 자기 지방 특유의 세태적인 풍속과 풍습들이 향토적인 체취로 승배여있습니다.

농악무라는 이름은 말그대로 농사군들의 음악

과 무용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는데 상모춤은 농악무의 기교에서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그럼 상모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피바다가극단 안무가 김인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백벌이 자리잡고있는 연안, 배천, 청단 지역에 나가 그곳 농민들이 오늘까지도 세세년년 전해오고있는 농악무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무대화한 재능있는 안무가입니다.

그는 민속무용 《상모춤》이 바로 연백농악무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농악무에서 북이나 징, 팽파리를 든 악기잡이군들은 전립(벙거지)꼭지를 참대나 구슬로 꾸미고 끝에다 해오라기의 텔 혹은 흰종이를 길게 오려서 달아 썼는데 이것을 상모라고 하였습니다. 상모군들은 그것을 돌리면서 기교를 부리었습니다.



리적재능을 보여준 리상적

리상적(1804년~1865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활동한 시인이다.

20살때 봉건적세습제에 의하여 역관의 직업을 물려받고 사신행차를 따라 여러번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45살때 중추부 지사로, 말년에 온양군수로 되었으나 석달만에 해임된 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리상적은 평생 부귀와 공명을 탐내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힘썼다.

그는 실학자 김정희(1786년~1856년)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그의 영향하에 시뿐만 아니라 금석학, 고증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쌓았다.

그는 이미 청년기에 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는데 《압록강을 도루 건너오며》, 《강을 건너

서 천행과 작별하여》, 《추사김시랑에게 드리는 만사》를 비롯한 많은 시들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감정과 불우한 처지에 있는 벗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자신의 청렴결백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밖에 그는 시 《늙은 쥐》

와 《개싸움》에서 봉건관료배들을 탄핵하고 조소하였으며 《관동관북에 화재났다는 말을 듣고》, 《길가의 송덕비》에서는 지방관리들의 착취와 랙탈행위를 폭로하였다.

이외에도 시 《리검수가 농막에 가는 길에서》를 비롯하여 착

취자들을 풍자비판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또한 그의 시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역사적자료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의 시 《안시성》, 《숙신돌살총의 노래》, 《진홍왕순수비탑본에 씀》 등에는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나라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민족적긍지가 반영되어있다.

리상적은 《리우상전》을 비롯한 산문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리상적의 작품들은 그의 문집 《은송당집》에 실려있는데 1847년과 1864년에 두번 간행되었다.

* * *

상모를 이리저리 돌리는 동작을 상모짓이라고 부르는데 상모의 길이나 재질에 따라 소상모, 대상모, 텔상모 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상모춤에는 외상모돌리기, 량상모돌리기 등 다양하고 재치있는 기교들이 있습니다.

상모춤은 여러명의 상모군들이 같은 또는 다양한 상모돌리기를 동시에 수행하는것으로서 집단적으로 째인 류동의 조화미를 보여주고있습니다. 대상모춤은 한두명의 상모군이 열두발 또는 그이상의 상모를 돌리면서 여러가지 장끼를 보여주며 텔과 같은 가벼운 부포를 전립꼭지에 달고 돌리는 텔상모춤은 부드럽고 섬세한 류동감을 자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연백벌지역의 향토적양상을 진하게 주며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오던 상모춤은 오늘날 민간예술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재능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들에서까지 열렬한 환호와 경탄을 자아내는 민족예술의 대표작으로 되고있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상모춤의 주역을 맡았던 피바다가극단 공훈배우 홍정국(43살)은 10대의 어린 나이때부터 12발, 20발, 40발까지 돌려왔는데 지난해 공연때에는 60발로써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인철안무가는 상모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예술적으로 더 훌륭히 형상하기 위해 대상모의 길이를 전통적인 12발짜리로부터 최고 60발까지로 늘이였으며 석줄짜리 소상모를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잘 배합하여 만사람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진정 민속무용 《상모춤》은 오직 조선민족만이 창조하고 향유하고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며 자랑입니다.

동포여러분,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바로 애국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자각하며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갑시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학명



안국사 대웅보전의 외부와 불상들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 안국사 -

안국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에 있는 절이다.

『평안도 자산부 안국사사적비』에는 안국사가 503년(천감 2년) 법석현구에 의하여 20여년 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도 안국사주변에서는 고구려기와조각들을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적지 않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후 이 건물은 1419년에 다시 지었고 1594년과 1654년 그리고 1785년에 각각 고쳐 지은 것으로 대웅보전의 마루도리에 기록되어 있다.

사적비에는 상암, 중암, 동서 승당의 기록이 보이나 절의 규모와 배치에 대하여서는 서술되



여있지 않다.

그러나 태평루앞쪽에 여러개의 단이 있고 거기에서 주추돌과 기와조각들이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절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안국사에는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정면의 태평루, 서쪽의 묘사채, 동쪽의 주필대가 남아 있으며 태평루앞에 고려중기이후의 9층탑이 서 있다.

안국사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 유적유물로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된다.

* * *

조선속담 (대 담성)

-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
- 야자가 힘이 센 사람에게 대담하게 맞서나가는 경우에 이르는 말.
- 담이 커야 범을 잡는다
- 무슨 일이나 큰뜻을 이루하자면 반드시 담이 커야 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 어면 일에서나 목적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 할수 있는 곳에 들어가 대담하게 행동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큰 고기를 낚기 위하여 작은 미끼를 아끼지 말라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티익쯤은 희생시키며 대담하게 행동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 *

야화

일곱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한 산골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분이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산으로 오르던 할아버지는 너럭바위우에서 우는 갓난애기를 보게 되었으며 그날부터 갓난애기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아이는 몰라보게 쑥쑥 자라고 힘이 세여 다른 애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망짝을 넝큼 들어올리고 어른들도 겨우 드는 절구를 안아다가 보리를 쿵쿵 짚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이가 앞으로 큰 장수가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장쇠라고 지어주었다.

장쇠가 총각꼴이 다 잡힌 어느 날 남쪽바다가에 왜적들이 기여들었다는 소문이 쳐 퍼졌다.

소문을 듣자마자 장쇠는 할아버지에게 청을 드리고 싸움터

를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장쇠가 어느 산비탈을 에돌아갈 때였다. 쿄바람쟁이가 쿄를 끌며 자고 있었는데 쿄김이 어찌나 센지 큰 바위가 움씰거렸다.

장쇠는 쿄바람쟁이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자기는 지금 왜적들을 쳐부시는 싸움터로 간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쿄바람쟁이는 자기도 한몫할수 있으니 같이 가겠다며 따라나섰다.

그들이 어느 한 령마루에 올

라서서 보니 이상하게도 넓은 강이 물으로 변했다 다시 물로 변했다 하며 그들의 눈을 희롱하는 듯싶었다. 강기슭에 앉아있는 웬 사람이 장난삼아 강물을 마셨다 내뿜었다 하고 있었던 것이

였다. 알고보니 입장수였다.

장쇠는 입장수와 인사를 나누고나서 자기가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입장수도 왜적들을 쳐부시려 가겠다고 성큼 나섰다.

장쇠는 쿄바람쟁이와 입장수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가던 길에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다 가려듣는 귀장수, 칼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백명의 목을 자르는 칼장수, 입바람을 한번 불게 되면 물을 꽁꽁 얼구기도 하고 펄펄 끓게도 하는 바람장수, 한번 치면 무엇이든지 단번에 부스러뜨리는 주먹장수를 만났다.

그리고보니 그들은 모두 일곱이 되었다.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왜적들과 어떻게 싸울것인가를 의논하는 한편 힘이 제일 세

고 마음씨 착한 장쇠를 대장으로 뽑았다.

그러한 때 할머니 한분이 허동지동 달려오고 있었다. 로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 동네에 왜적들이 기여들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곱장수는 급히 산마루로 뛰여올라갔지만 벌써 날이 어두워져 앞을 가려볼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할게 없었다. 귀장수가 귀를 기울이고나서 왜적들이 마을에서 돌아치고 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마을에 들어섰다.

장쇠는 마을의 정자나무옆의 바위우에 올라서서 박력있는 큰 소리로 『칼장수야, 왜적들의 목을 모조리 잘라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칼장수는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가며 휘둘러댔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함께 적들의 대가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적장이 소리지르자 땅바닥에 떨어졌던 대가리들이 다시 몸뚱이에 들어붙었다. 장쇠는 급히 쿄바람쟁이를 불렀다. 대장의 명령을 받은 쿄바람쟁이는 쿄김을 내뿜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떨어졌다가 다시 불은 왜적들의 대가리와 몸뚱이들이 제각기 떨어져나간것은 물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장쇠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입장수를 불렀다. 입장수는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물을 들이켰다가 『푸— 푸—』 하고 내뿜어 눈깜박하는 사이에 물바다를 펼쳐놓았다.

그러자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왜적들이 물속으로 첨벙첨벙 떨어졌다. 물에 빠진 적들은 저마다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렸다.

이때 장쇠가 바람장수를 불리 물바다를 꽁꽁 얼구어버리라고 하자 바람장수는 찬바람을 내뿜어 물바다를 얼음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왜적들이 푸짝달싹 못한채 얼음판위에 목만 내놓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것을 주먹장수가 이리치고 저리치며 왜적의 대가리들을 모두 뚝사발로 만들어놓았다.

마침내 왜적들을 모조리 쳐신 일곱장수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너무 좋아 소리높이 환성을 울리고나서 제각기 살던 고장으로 떠나갔다.

본사기자

징벌의 검

1419년 5월 수많은 왜구들이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에 침입하여 야수적이고 파괴적인 랴탈만행을 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왜구들에 대한 백성들의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쓰시마의 왜구들을 징벌할데 대한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나왔다.

하여 봉건정부는 리종무를 3군도체찰사로 임명하고 쓰시마원정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중임을 맡은 리종무는 우선 쓰시마섬을 불의에 기습하기 위하여 냉이포에 살던 왜인들을 내륙지방으로 옮기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와있던 일본령주들의 사신들과 상인들을 억류하였으며 귀순해온 왜인들의 출입도 단속하여 원정에 대한 소문이 쓰시마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각 포구와 해안의 방비를 빙틈없이 하기 위하여 바다가 고을원들을 무관으로 바꾸고 함선들도 중요한 곳에 집중배치하였으며 싸울만한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해안을 지키게 하였다.

원정준비를 빙틈없이 갖춘 리종무는 1419년 6월 17일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여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함대를 이끌고 거제도를 떠나 20일 낮에 쓰시마의 앞바다에 진출하였다.

조선함대가 쳐들어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왜구들은 명나라로로 랴질을 나갔던 자기편이 돌아오는줄 알고 바다에 밀려나와 배들을 기다렸다.

검을 틀어쥐고 적들의 꼴을 바라보던 리종무의 가슴에서는 피가 끓어번졌다.

『내 오늘 악착하기 그지없는 왜구들을 한칼에 요정내리라!』

대를 두고 우리 나라 바다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피롭히던 도적무리들이었다.

이제는 적들의 소굴을 짓부시고 복수의 창검을 휘둘러대리라 생각하니 두활에 힘이 솟구치고 용기가 났다.

기치창검이 대숲처럼 설레이는 함선들이 포구에 당자 그제야 모든것을 알아차린 왜구들은 냉을 잊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달아났다.

그러나 반항해나서는 왜구들도 적지 않았다.

군사들이 물에 발을 옮겨놓으며 덤벼드는 왜구들에게 화살을 날렸다.

함선들이 닿고 기세충천한 군사들이 물에 오르며 왜구들을 죽쳐대기 시작하였다.

창검이 번뜩이였고 흙먼지가 뾰얗게 일었다. 피상한 비명을 지르며 왜구들이 사방에서 꼬꾸라졌다.

왜구들은 무리로 죽고 사로잡히였으며 일부는 도망쳐버렸다.

사로잡힌 왜구들이 리종무의 앞으로 끌려왔다. 상투를 뒤통수에 불인 왜구들은 무릎을 꿇고 두손을 써싸 비비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왜구들은 듣거라!』

리종무의 호령은 추상같았다.

『살인파로 랴질에 이끌려 난 왜구를 징벌하기 위해 오늘 조선함대가 도적의 소굴을 치게 되었노라!』

흉악무도한 쓰시마도주에게 한시바삐 졸개들을 거느리고나와 이 검앞에 무릎을 꿇도록 일러라!』

왜구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깊이 숨어버린 도주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4)

평양의 특산—대동강승어국



동강연안의 송어가 명산물로 널리 손꼽힌다. 옛 역사책들인 《평양속지》(토산 어류)에 송어(수어)는 대동강에서 사는데 언것이 가장 맛있다고 씌여져있는가 하면 《성소부부고》에는 평양의 송어가 8도가운데서 제일 이름났다고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수어란 송어의 고기맛이 여러 물고기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물고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동강승어국이 얼마나 유명하였지 평양을 찾아온 태고장사람들도 승어국을 먹고 가야 손님으로서 대접을 잘 받은것으로 생각하였고 자기 고장에 돌아가서도 대동강승어국맛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다녀온 사람을 만나서 첫 인사말로 물어보는것 역시 《승어국맛이 좋던가.》라는 말이였다.

예로부터 유명한 대동강승어국은 오늘도 평양의 특산음식으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다.

쓰시마원정은 조선인민은 남을 건드리지 않지만 우리 나라를 침입하는 원쑤들은 결코 용서치 않고 철저히 징벌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 *

유모아

자라는 어린이 옷



어머니가 웃상점에서 어린이 내의를 사왔다.

그런데 뺄수록 웃이 커졌다. 어머니가 상점에 찾아가 따지자 상점책임자가 말했다.

『우리 상점에서 파는 어린이 옷은 어린애와 같이 자란답니다.』

* * *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4)

- 칠보산 -

우리 나라 6대명산의 하나인 칠보산은 함경북도의 남부에 있는 명산이다.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진 칠보산은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그 이름도 칠보산이라고 불리워왔다.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바다의 경치와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을 두고 우리 선조들은 백화가 만발하는 봄에는 꽃동산, 둑음이 우거지는 여름에는 둑음산, 단풍이붉게 타는

가을에는 홍화산, 흰 눈으로 은빛 단장한 겨울에는 설백산이라고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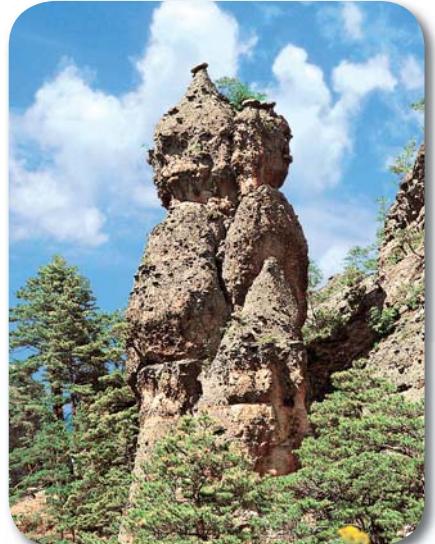
칠보산은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뉘어진다.

내칠보는 칠보산의 내원동을 비롯한 박달령 동쪽지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명승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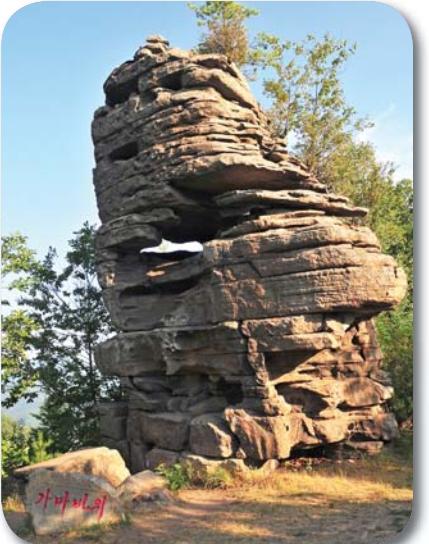
내칠보에는 삼봉이암, 상매봉, 금강봉, 조룡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과 부부바위, 황소바위, 농부바위, 장수바위, 투구바위, 책바위, 룡바

위, 창검바위 등 기묘하고 색다른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어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나타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껏 관망할 수 있는 개심대, 승선대, 해망대, 내경대, 회상대가 있다.

외칠보는 내칠보와 해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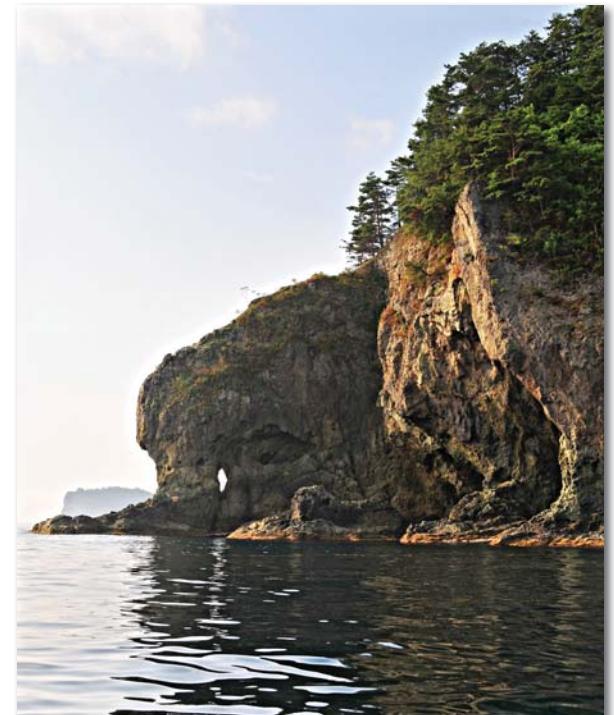
내칠보의 부부바위



내칠보의 가마바위



외칠보의 로적봉



해칠보의 코끼리바위

보지역을 제외한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외칠보는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만장봉, 승천봉, 맹수봉, 로적봉, 기치봉을 비롯하여 겸바위, 매바위, 처녀바위, 총각바

내칠보의 가을

위, 고양이바위 등 높이 솟은 웅대하고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절벽, 수정같이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끌짜기가 많아 산악미와 계곡미가 이채로운 것으로 이름났다.

해칠보에는 솔섬, 솔바위섬 등 명소로 이름난 크고작은 섬들과 촉석암, 칠보암, 무지개바위, 각시바위, 먹바위, 벼루바위, 코끼리바위, 선남바위, 선녀바위 등 깎아지른듯 한 해안선의 절벽과 각양각색의 기암괴석들 그리고 동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날리는 특이한 해안절경을 펼쳐보이는 것으로 하여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장쾌한 감을 주는 명승지이다.

이밖에도 칠보산에는 우리 민족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유적유물들이 수많이 보존되어 있다.

오늘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칠보산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기를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겨례의 운명파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과 자주통일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분별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조선반도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며 북남사이에 침예한 군사적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조건과 환경속에서는 언제가도 북과 남이 불신과 대립을 가질수 없고 통일을 향해 끈바로 나아갈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들어낼 때만이 우리 겨례가 평화롭게 안정되어 살아갈수 있으며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북남관계

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돌이켜보면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대화마당이 마련되고 협력사업들이 진행되여도 대화일방을 겨냥하여 감행된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들은 그 모든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서로의 불신과 대결만 부추겼다. 남조선의 이전 보수《정권》시기가 바로 그러했다. 꼭절많은 북남관계사는 총포성이 요란하게 울리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속에서는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 있다.

북남관계의 전진을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례에게 안겨주었다.

지난해 공화국은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자세와 립장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데서 판문점선언

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할것이다.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은 군사적긴장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위험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다.

북과 남은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계밀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보장도태를 실질적으로 마련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진옥

강화되는 《보안법》철폐운동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할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보안법》이 조작된지 70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남조선의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가 집필한 도서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보안법》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책에서 당시 리승만역도가 진보적인 활동을 탄압할 심산밑에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 《보안법》은 조작초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을 짓밟는 수단으로 악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왔다고 하면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족작가련합소속 녀류시인은 식민지땅에서 살판치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 새세상을 이루자는 내용의 시 《국가보안법을 무덤에 묻고 통일법으로》를 창작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보안법》폐지를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남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폐운동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이라는 것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파쑈폭압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조작해낸 악법이다. 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력대 남조선 보수《정권》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처형한 일제의 파쑈악법을 청산하기는커녕 그에 기초하여 가장 악명높은 《보안법》을 꾸며내고 저들의 비위에 맞게 개악하면서 그것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인민탄압을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박정희역도의 집권시기를 놓고보아도 파쑈교형리들은 《유신》독재 철폐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보안법》을 휘둘러 체포처형하면서 전대미문의 치열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보안법》이 살기를 풍기는 속에 공화국을 동경하고 찬양하거나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 독재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가차없이 탄압당하였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존재해온 력사야말로 파쑈독재의 칼날에 민주주의가 무참히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온 피비린 범죄의 력사이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무고한 인민들을 그렇듯 닥치는대로 탄압한 남조선의 《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없다. 하기에 국제인권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보안법》을 폭로단죄하면서 그의 철폐를 요구해온 것이다.

이런 악법이 보수《정권》이 몰락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빼앗아 살아 독을 쓰고있는 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진실로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제명을 다 산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 이미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인권유린국, 인권말살국

《법치국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일본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행위들이 매일, 매 시각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간증오사상과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은 10대, 20대의 청소년들 속에서 살인과 자살범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에서 18살 난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 시마네현에서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시가현에서 25살 난 청년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무참히 죽인 사건 등 끔찍한 살인범죄행위들이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것은 살인범죄를 감행한 자들에게서 죄책감이란 꾀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파일 칼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녀는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죽일 작정을 하고 찔렀다고 뇌까렸으며 가나자와시에서 할아버지를 죽인 손자는 살인행위를 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오락장에서 놀았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려행용 가방에 넣어 내버려 죽인 것, 아버지가 태여난지 2개월밖에 안 되는 딸을 주먹으로 때려죽인 것, 안해가 남편을 목졸라 죽인 것,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5살 난 딸을 때려죽인 것, 8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위생 실에 내버려 두어 죽게 한 것 등 혈육을 살해하는 야만적인 범죄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난 것은 일본 이야기로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온갖 사회악과 반인륜적 범죄가 범람하는 썩고 병든 일본이야말로 극악한 인권유린국, 인권말살국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킨 특대형 반인륜죄악은 일본이 어떠한 야만국가였는가를 만천하에 폭로해주고 있다.

간또대지 진때에 방화의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고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도,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생화학전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악착하게 살해한 것도 바로 군국주의 일본이다.

오늘날 일본국내에서 듣기에도 끔찍한 범죄행위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특대형 반인륜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누구의 《인권》 실태에 대해 이리쿵저리쿵 시비질하며 날뛰고 있다.

더우기 일본은 조선반도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자 적대세력들과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끝끝내 조작해내고 《인권침해보고서》라는 것까지 발표하는 등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수상 아베는 년두소감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후 일본외교의 총결산》을 운운하며 《랍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아베의 망동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들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어떻게 하나 회피해보려는 섬오랑캐 특유의 파렴치성의 발로이다.

도적이 먼저 매를 든다고 오히려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씻을 수 없는 온갖 만고죄악을 다 저지른 과거를 가진 일본이 누구에 대해 이리쿵저리쿵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제 쿄도 씻지 못하는 주제에 일본이 그처럼 《인권》과 《랍치문제》에 대해 떠들고 있는 목적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역사에 류례없는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모든 죄악을 감추고 사죄와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데 있다.

일본이 정말로 《인권》과 《랍치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응당 자기들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부터 문제시하고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해야 하며 자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금이온항암주사약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첨단기술로 유선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수술후재발과 전이 및 예방과 치료에 좋은 금이온항암주사약을 만들었습니다.

금이온항암주사약은 종전의 항암제와는 달리 독성과 축적작용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 사용에서 부정적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 * *





삭주계곡의 봄 본사기자 김춘혁

삭주(평안북도 삭주군)계곡에 봄이 왔다.
나무가지마다에 피여난 꽃들과 소나무들의 푸른 잎새에도, 지줄대며
흐르는 시내물소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게 안겨온다.

